

News

내달 주총, 국민연금 눈치보는 금융지주

파이낸셜뉴스

주요 금융지주 지분의 약 10% 보유한 국민연금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 금융지주는 다음달 주주총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등 국민연금은 이전 대비 주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경우 많아

의사·변호사가 대출이자 더 낸다…전문직-직장인 '금리 역전' 속출

한국경제

KB금융지주는 신종자본증권 35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 나선다. 증액 한도는 최대 6000억원으로 열어뒀다.

지난해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하며 이중레버리지배율이 올라가자 자본 인정 비율을 늘려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파악

하나금융 회장후보 이달 결정…힘실리는 '김정태 재신임론'

연합뉴스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가 이달 중 정해질 예정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된 이들이 법률 리스크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위해 김정태 회장의 '1년 재신임' 필요하다는 분위기

40년 만기 주담대 하반기 도입…이자율 20% 초과대출 '갈아타기' 지원

연합뉴스

현행 최장 모기지인 35년짜리 보다 만기가 5년 더 긴 40년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출시, 기존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우선 시행

금융위는 주금공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

호실적에 보험사 배당금 늘어…배당성향 삼성화재 '최고'

한국금융신문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 7곳의 작년 결산 배당금 총액은 1조2485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1조1714억원 대비 671억원 가량 늘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보험사 임원을 소집해 배당 자체를 권고했지만 보험사별로 배당성향에 차이가 있어 금융지주와 달리 세부 요구사항 없어

현대해상 손해율 개선해 작년 순이익 늘어, 자사주 207억 매입 결정

비즈니스포스트

현대해상은 자기주식 100만 주를 장내매수하기로 했다. 취득 예정금액은 207억 원이며 취득 예상기간은 2월15일부터 5월10일이다.

현대해상은 "주가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인연금 은행·보험→증권사 '머니무브' 가속…1월에만 2천900억

연합뉴스

지난 1월 한 달간 은행, 보험사에 있던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이 미래에셋대우 등 국내 5개 대형 증권사로 이전한 계좌 수는 총 1.1만개로, 금액은 2천888억원

'즉시연금 분쟁' 보험사들 '파소 대비' 적립… "가입자에 청신호"

연합뉴스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보험사가 연달아 패소한 가운데 여러 생보사가 미지급금 환급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확인

미래에셋생명과 KB생명은 작년 실적 공시를 통해 즉시연금 소송 대비 충당금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